

# 남원시 관광 마케팅 빅데이터 활용

### 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트렌드·방문자 등 데이터 분석해 적용 현장답사·전문가 컨설팅 투어 등 진행...연말에 최종 보고서 공개

남원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은 관광 트렌드, 방문자 특성 데이터, 관심 업종 소비 데이터 등 관광 여건을 분석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6월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컨설팅 투어, 의견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12월 성과 공유회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컨설팅 대상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로 선정한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으로, 광한루원 일대 반경 2km 일원을 전통문화 체험관광 특화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광한루원 맞은편에 실감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달빛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춘향데마파크,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화인당 등의 시설과 연계해 광한루원 일대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8월 개관 예정인 스마트관광도시의 핵심 서비스인 복합 문화공간 '스마트루나'로 관광객의 동선을 유도하겠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편리하고 매력적인 체험을 제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이 증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서초등학교, 핸드볼 명가 '우뚝'



선수들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 후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정읍서초 제공>

## 여자 핸드볼 전국소년체전 우승

정읍서초등학교 여자핸드볼팀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초등부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국 핸드볼 명가로 우뚝섰다.

정읍서초등학교는 최근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2세 이하 여자핸드볼 경기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28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치러진 결승에서 서초등학교는 홈팀인 전남 무안 초등학교에 전후반 스코어 12대 11, 짜릿한 1점차 승리를 거두며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읍서초학교 핸드볼팀(교사 서용표, 코치 김미소)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전국의 각 시도를 상대로 다양한 팀과 친선 경기를 거쳐 선수들의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았다. 특히 전남, 충북, 경기, 강원, 경북 등과 원정경기를 통해 핸드볼 경기 전략과 세트 연습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결승전에는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과 최용훈 정읍교육장이 직접 참석해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양영기 총동창회장도 이날 우승을 축하하며 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가축분뇨 처리·악취 저감 사업 31억 투입

### 주민 상생 친환경 축산업 조성 152개 농가 '깨끗한 농장' 지정

남원시가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나섰다.

남원시는 악취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해 31억을 투입해 관내 돼지와 가금류, 한우, 기타 축종 등 총 1031개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부적 예산투입 내용은 ▲분뇨처리 시설·장비 4종 17억2000만원 15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4종 3억2000만원 191농가 ▲가축분뇨 이용·운송 처리지원 3종 2억3000만원 160농가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 지원 7억원 468농가 ▲컨설팅 기타 5종 1억4000만원 197농가 등이다.

축산분야의 가장 큰 현안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13억원을 투입해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지역 1436개 농장 중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와 악취저감 장치 등을 갖춘 돼지농가.

10.5%인 152개 농장을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향후 깨끗한 축산농장을 단계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지

속적인 악취개선사업을 펼쳐 주민들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자활센터 키즈카페 저소득층에 무료

### 한부모가정·기초수급자 대상

정읍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 중 하나인 블럭팡키즈카페사업단에서 '지역과 협력하는 건강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는 사업단이 내장상동 일원에 운영 중인 '블럭팡' 키즈카페를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차상위가정 등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2019년 이곳에 어린이들의 장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여러 놀이기구들을 구

비해 키즈카페를 개장·운영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6000원이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과 협약을 맺어 평일에는 협약기관 어린이의 경우 시간당 4000원의 할인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번엔 저소득층 대상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1회 방문 시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키즈카페를 개방했다.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지역과 상생의 협력관계를 갖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전통 도자 찻사발, 마음을 나누는 그릇'

### 부안 청자박물관, 11월까지 기획전

부안군 청자박물관이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획전시(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도자 찻사발, 마음을 나누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고려 시대 청자부터 근현대 도자기까지 1000년을 이어온 한국 전통의 도자 찻사발을 전시한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차 한잔으로 벗과 마음을 나누기도, 때로는 삶의 고단함을 달래기도 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찻사발은 삼국시대 질그릇 찻사발로부터 푸른 유리알처럼 아름다운 고려청자 찻사

발, 질박한 맛의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 찻사발 등 시대마다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는 1000년 전 고려청자, 500년 전 조선 분청사기와 백자,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물레로 형태를 만들고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전통 방식의 찻사발 등 다양한 도자기를 전시했다.

특히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평생을 바쳐 도자기를 빚어낸 근현대 전승 도예가들의 귀한 작품을 수십 년간 수집한 강태우 선생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전시가 준비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부안



고려청자 찻사발을 비롯한 근현대 전통 도자 찻사발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안=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재가 암환자 심리 치료·맞춤 교육

재가 암환자를 위한 전북 고창군보건소의 지원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는 지역 재가 암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활력과 행복을 더하는 재가 암환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재가 암환자와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가 건강관리 강화와 사회적 기능 복구를 돕고 치료경험, 극복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를 불어 넣어준다.

암 관리 전문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암생존자

통합지센터와의 지속적인 연계로 마련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은 ▲2차암 예방교육 ▲원예요법 ▲색채심리치료 ▲재가 암환자 맞춤 영양 식생활 교육 ▲근력강화운동 등이 있다.

재가 암환자를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보건소는 등록된 재가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전담인력과 12개 보건지소와 24개 보건진료소를 연계해 세심한 연중 방문 건강관리 지원과 건강 활력을 위한 영양제, 보충식품 지원 등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